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1, Vol. 2, No. 2, 159-170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범죄자, 피해자의 특성과 범행 수법을 중심으로

김 윤 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대학원

박 지 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공연음란 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관련 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게 경시되거나 오히려 희화화되는 경향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 결과나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 총 249건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 발생 특성,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름(6-8월)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발생하며,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범죄자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거의 모두 단독범이고, 범행 당시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범죄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노동, 종업원 등의 순서였다. 한편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이거나 양성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았고,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였다. 또한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에 대한 대처나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연음란 범죄,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범죄 예방

† 교신저자 : 박지선, 국립경찰대학 교수
Tel : 031-620-2164, E-mail : jsirispark@hotmail.com

www.kci.go.kr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커다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이후,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릴만한 또 다른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 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31세의 윤모씨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8살 난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윤씨의 이전 범죄 관련 행적을 살펴본 결과, 윤씨는 2004년과 20007년 각각 버스정류장과 전철 대합실 통로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전력이 있으며, 또 2008년 5월에는 공원 잔디밭에 성기를 드러내 놓고 누워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5차례 성범죄 또는 윤락행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45조)”로, 공연음란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거 공연음란 범죄는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바지를 벗는 행위라든지, 예술가들의 행위에 대한 묘사(소설이나 연극 등)가 법적으로 음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큰 쟁점이었으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대상에게 성기를 노출시킨다든지, 어린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건전한 성도덕을 해칠 뿐더러 공공의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앞의 윤모씨 사건에서처럼 과거 공연음란행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추후에 더 큰 성폭행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음란 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관련 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게 경시되거나, 오히려 희화화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 결과나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공연음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중에 성폭력 등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연음란 범죄 자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외상 증후도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 발생 특성 및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범행 당시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공연음란 범죄 가해자의 특성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의 발병은 보통 20대 초중반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많은 경우에 사춘기에 시작되기도 한다(Blair & Lanyon, 1981). 한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 당시 가해자의 33.3%가 22세 사이에서 30세 사이의 연령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Riordan, 1999). 전반적으로 노출증적 행위의 발병은 가해자 주변 상황의 변화나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압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lair & Lanyon, 1981), 예를 들면 결혼이나 자식의 출생, 아내나 고용주와의 언쟁, 음주 등이 노출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Gebhard, Gagnon, Pomeroy, & Christiansen, 1965; Mohr, Turner, & Jerry, 1964).

대부분의 공연음란 범죄자들은 과거 결혼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범행 당시 기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Blair & Lanyon, 1981). 그러나

www.kci.go.kr

이들의 부부생활,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평균적인 부부 관계보다 성관계의 횟수가 적게 나타나거나(Hackett, 1971), 평균을 넘는 빈도의 자위행위가 나타났다(Gebhard et al., 1965; Mohr et al., 1964). 실제로, 범행 당시 이들의 대부분은 자위행위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동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iordan, 1999).

한편 이들의 지능이나 교육 수준은 일반적인 인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Blair & Lanyon, 1981), 이들의 상당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부재하는 등 불완전한 가정에서 양육되었고, 부모의 모순된 훈육방식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감정적 학대, 애정결핍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Blair & Lanyon, 1981).

이들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열등감이 많고 겁이 많거나 내성적이고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격성과 적개심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충동을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명백한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lair & Lanyon, 1981).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특성

공연음란 범죄 관련 피해는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에게 노출되어 있다(Cox, 1988).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총 846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음란 범죄 관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 중 남성이 음란한 노출을 하는 것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3%가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ox, 1988). 처음 피해를 경험했을 때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세에서 16세 사이가 가장 많은 43%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17에서 19세 사이가 29%, 7세에서 9세 사이가 12%, 1세에서 6세까지가 11%, 그리고 20세 이상의 경우가 4%로 나타났다(Cox, 1988). 다른 연구에서는 16세 이전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7.1%, 16세에서 21세 사이가 31.4%, 22세와 30세 사이가 8.5%로 나타나(Riordan, 1999), 두 연구에서 모두 16세 이하의 연령에서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대부분(64%)이 낯선 사람이고, 서로 알고 있던 사람인 경우는 36%였는데 이들 중 지인이 전체의 19%, 친척이나 친한 친구는 13%, 남자 형제는 3%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는 2%에 해당했다(Cox, 1988).

범행 발생 장소에 있어서는, 한 연구에서 범행의 53.3%가 거리에서 발생했으며, 13.3%가 공원, 8.9%가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타 장소로는 버스나 주차장, 수영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iordan, 1999).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경우는 35.6%를 차지한 반면, 대부분(64.4%)이 다른 사람(대부분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보고했다(Riordan, 1999). 이들 피해자들은 쇼핑 중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iordan, 1999).

공연음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후유증

공연음란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최초 반응에 있어서,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거나 공

www.kci.go.kr

포를 느끼는 등 상당수가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Riordan, 1999). 그러나 이에 비해 이러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가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일 때 그 신고율은 극히 미미했다(Cox, 1988).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놀림거리로 볼 것을 우려하거나 경찰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Cox, 1988; Riordan, 1999).

공연음란 범죄 발생 직후 대부분의 피해자가 동일한 범죄자가 다시 돌아와 공격하거나, 특정 장소로 끌고 가 강간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Riordan, 1999). 이외에도 범죄 발생 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거나, 성범죄가 널리 퍼졌다는 인식이 증가하기도 한다(Riordan, 1999). 실제로, 피해 여성들이 차후에 자신의 활동 영역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게 된다는 점에서 공연음란 범죄의 부차적인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범죄 발생 이후 혼자 가는 것을 기피하게 된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는 지하철이나 조용한 거리, 좁은 골목길이나 고립된 공간, 혹은 개방되어 있는 공원이나 주차장, 그리고 자기 방어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Riordan, 1999).

이처럼 공연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 발생 특성 및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범행 당시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3년간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경찰관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전반적인 범죄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작성하는 경찰 CIMS통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3개년 간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의 수치를 살펴보면 총 249건으로, 2007년에 발생한 사건이 75건(30.1%), 2008년이 52건(20.8%), 2009년이 122건(48.9%)으로 나타났다.

분석 내용

공연음란 범죄의 발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주요 변인들은 크게 범죄 발생 특성,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이라는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범죄 발생 특성은 발생 계절과 요일, 범행 시간과 장소로 구성되며,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범죄자의 성별과 국적, 공범 여부, 범행 당시 음주 여부, 직업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피해자 특성은 피해자의 성별과 피해자 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범행 수법은 가해자의 노출 방법, 피해자로의 접근 방법과 범행 당시 성적인 언사 등의 언어 사용,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차량 동원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www.kci.go.kr

결 과

공연음란 범죄 발생 특성

우선 공연음란 범죄의 계절별 발생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름(6-8월)에 95건(38.2%)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봄(3-5월)에는 71건(28.5%), 가을(9-11월)에는 63건(25.3%)이였으며, 겨울(12-2월) 발생 건수는 20건(8.0%)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요일별 공연음란 범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표 1 참조), 목요일에 발생한 범죄 건수가 46건(18.5%)으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이 24건(9.6%)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 발생건수에 있어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주말이 평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생 범죄 건수가 다소 적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발생 시간별 비율을 살펴보면(표 1 참조), 20-24시 사이에 발생 건수가 59건(23.7%)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16-20시 사이에 49건(19.7%)이 발생하였다.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시간은 04-08시 사이로, 25건(10.0%)이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새벽이나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야간에 공연음란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범행 장소를 살펴보면(표 1 참조), 우선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126건(5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범죄가 11.6건(11.6%), 학교 근처와 놀이터 혹은 공원이 각각 23건(9.2%)으로 나타났다.

표 1. 공연음란 범죄 발생 특성

	구 분	빈도 (%)
요일	일	27(10.8)
	월	26(10.4)
	화	41(16.5)
	수	45(18.1)
	목	46(18.5)
	금	40(16.1)
	토	24(9.6)
	합계	**249(100)**
	구 분	**빈도 (%)**
범행 시간	00-04시	45(18.1)
	04-08시	25(10.0)
	08-12시	34(13.7)
	12-16시	37(14.9)
	16-20시	49(19.7)
	20-24시	59(23.7)
	합계	**249(100)**
	구 분	**빈도 (%)**
발생 장소	노상	126(50.6)
	학교 근처	23(9.2)
	건물 안, 복도	8(3.2)
	피의자 차량 내	20(8.0)
	놀이터, 공원	23(9.2)
	대중교통 안	9(3.6)
	편의점 등 사업장	29(11.6)
	버스정류장	11(4.4)
	합계	**249(100)**

공연음란 범죄 가해자 특성

우선 공연음란 범죄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

www.kci.go.kr

과, 남성 범죄자의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국적을 살펴보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일가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공범 여부를 살펴본 결과, 오직 2건(0.8%)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음란 범죄자들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를 살펴보면, 249건 중 24건(9.6%)에서만 범죄자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225건, 90.4%)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표 2 참조), 미상인 경우(109건, 43.8%)를 제외하고는 회사원이 42명(16.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무직이 38명(15.3%), 노동이 17명(6.8%), 종업원이 12명(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2. 공연음란 범죄자의 직업 분포

직업	빈도 (%)
무직	38(15.3)
노동	17(6.8)
회사원	42(16.9)
학생	9(3.6)
자영업	5(2.0)
전문직	10(4.0)
종업원	12(4.8)
운전기사	7(2.8)
미상	109(43.8)
합계	**249(100)**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 특성

이번에는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249건(100%)중 남자가 8명(3.2%), 여자가 138명(55.4%)이었고, 양성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 103건(41.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표 3 참조), 20대가 41명(1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대가 38명(15.3)으로 나타났다(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제외). 즉,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공연음란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의 수를 살펴보면(표 3 참조), 10명 이상이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2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한 명이 있을 때가 71건(28.5%), 2명이 있을 때 30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가 242건(97.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7건, 2.8%)를 살펴보면, 대부분 상대방에게 화가 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음란 범죄자가 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49건(100%)중 137건(55.0%)에서 가해자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고, 112건(45.0%)에서 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www.kci.go.kr

표 3.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 특성

	구 분	빈도 (%)
연령대	9세 이하	2(0.8)
	10대(10-19세)	38(15.3)
	20대(20-29세)	41(16.5)
	30대(30-39세)	13(5.2)
	40대(40-49세)	13(5.2)
	50대(50-59세)	7(2.8)
	60대(60-69세)	4(1.6)
	미상	131(52.6)
	합계	**249(100)**
	구 분	**빈도 (%)**
피해자 수	1	71(28.5)
	2	30(12.0)
	3	16(6.4)
	4	1(0.4)
	5	5(2.0)
	6	3(1.2)
	10	1(0.4)
	10명 이상	122(49.0)
	합계	**249(100)**
	구 분	**빈도 (%)**
피해자 상황	보행 중	141(56.6)
	누군가를 기다리던 중	32(12.9)
	휴식 중	29(11.6)
	일하는 중	14(5.6)
	담화 중	13(5.2)
	기타	20(8.0)
	합계	**249(100)**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 중에서도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49건(100%)중 58건(21.4%)에서 가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범행 발생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표 3 참조), 길거리에서 보행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141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중에 발생한 경우가 32건(12.9%), 놀이터나 공원에서 휴식 중 발생 건수가 29건(11.6%)으로 많았다.

공연음란 범죄자 범행 수법

우선 공연음란 범행 수법에 있어 가해자의 노출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249건(100%) 중 지퍼만 열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가 111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바지를 내린 경우가 91건(36.5%), 완전 나체로 범행한 경우가 33건(13.3%), 기타 14건(5.6%)의 순이었다. 지퍼만 열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는 대부분 자위행위와 관계가 있었는데, 범행 당시 가해자가 자위행위를 한 경우는 전체 249건 중 146건(5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공연음란 범행에 차량을 동원한 경우는 관련 정보가 드러난 전체 범죄사건 총 280건(100%)중 24건(9.6%)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옷을 벗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가 자신을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이다. 한편 피해자를 금품으로 유인한 경우는 전체 공연음란 범죄 249건(100%) 중 1건(0.4%)에 불과했는데, 이 경우는 어린 여학생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바지를

www.kci.go.kr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이다. 또한 범죄자가 얼굴을 가리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는 단 1건(0.4%)이 있었는데, 이는 다리 위에서 얼굴을 마스크와 안경으로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란행위를 보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연음란 범행 중 다양하게 나타나는 범죄자의 언어 사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건 경우는 18건(7.2%)이 있었는데, 음란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봐”, “쳐다봐 줘” 등의 말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는 7건(2.8%),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는 7건(2.6%)이 있었다. 이러한 언어 폭력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경우는 4건(1.6%)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음란행위를 한 후 놀란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피하려 할 때 폭행을 가한 경우이다.

또한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탈의를 강요를 한 경우가 1건(0.4%) 존재하였고, 공연음란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접촉을 한 경우가 3건(1.2%) 있었는데, 예를 들어 특정 대상에게 공연음란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으로까지 발전한 경우이다. 덧붙여, 가해자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다닌 경우도 13건(5.2%)이 존재하였다.

논의 및 결론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연음란 범죄 발생 특성 및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범행 당시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 총 249건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 발생 특성,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이라는 네 가지의 범주를 통해 공연음란 범죄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공연음란 범죄 발생 특성에 있어서는, 여름(6-8월)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요일별로는 예상과는 달리 주말이 평일에 비해서 발생 범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시간에 있어서는, 새벽이나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야간에 공연음란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장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편의점 등 사업장이나 학교 근처와 놀이터 혹은 공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연음란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범죄자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거의 모두 공범이 없는 단독범이고, 범행 당시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공연음란 범죄에서 술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죄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무직, 노동, 종업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는 남성 단독인 경우는 거의

www.kci.go.kr

없고 대부분 여자이거나 양성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0대가 많아,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들의 수는 10명 이상이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발생은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보행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중에 발생하거나, 놀이터나 공원에서 휴식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우선 범행 당시 가해자가 자위행위를 한 경우는 과반 수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공연음란 범행에 차량을 동원한 경우는 드물게 존재하며, 피해자를 금품으로 유인한 경우 또한 극히 드물었다. 또한 범죄자가 얼굴을 가리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행 중 다양하게 나타나는 범죄자의 언어 사용 특성에 있어서, 가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나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경우는 극도로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 당시 공연음란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접촉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게 존재하였고, 피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다닌 경우도 극소수 존재하였다.

공연음란 범죄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범죄 예방의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보면, 우선 신체적,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범죄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연음란 범죄 발생 장소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학교 부근이나 놀이터 등 어린 아이들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 이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공연음란 범죄자의 범행 수법과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의 접근 방법에 있어 범죄자가 차량을 동원하거나 마스크나 모자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음란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공연음란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본인의 검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나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전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이 놀림거

www.kci.go.kr

리로 볼 것을 우려하거나 경찰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공연음란 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연음란 범죄 관련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연음란 범죄 피해를 사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도록 할 수 있는 경찰의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3개년 간 발생한 사건들로, 본 연구 결과의 국내 전체 공연음란 범죄에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 보다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집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수법이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 포함된 범행 수법 외에도 추가의 범행 관련 변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연음란 범죄는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결코 사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Riordan, 1999). 특히 범죄 발생 직후 대부분의 피해자가 동일한 범죄자가 다시 돌아와 공격하거나 특정 장소로 끌고 가 강간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Riordan, 1999), 일부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Riordan, 1999) 차후에 자신의 활동 영역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에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Davis & Davis, 1976; Cox & Daitzman, 1979) 따라서, 공연음란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 범죄 가해자의 동선과 범행 지역 분포와 관련하여, 범죄 현장과 가해자의 주거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도 공연음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들의 동선이 가해자의 집 주변인지, 혹은 가해자의 출퇴근 경로 와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를 특정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범죄자의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생할 공연음란 범죄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Blair, C. D. & Lanyon, R. I. (1981). Exhibitionism: Etiology and treatment. *Psychological Bulletin, 89,* 439-463.

Cox, D. J. (1988). Incidence and Nature of Male Genital Exposure Behavior as reported by college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227-234.

Cox, D. J. & Daitzman, R. (1979). Behavioral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male exhibitionism. In M. Hersen, R. M. Eisler, & P. M. Miller(Eds.), *Progress in behavior*

www.kci.go.kr

mod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Davis, S. K. & Davis, P. W. (1976). Meaning and Process in erotic offensiveness: An expose of exposes, *Urban Life, 5,* 377-396.

Gebhard, P. H., Gagnon, J. H., Pomeroy, W. B. & Christiansen, C. V. (1965). *Sex offenders: An analysis of types.* New York: Harper & Row.

Hackett, T. P. (1971). The psychotherapy of exhibitionists in a court clinic setting, *Seminars in Psychiatry, 3,* 297-306.

Mohr, J. W., Turner, R. E., & Jerry, M. B. (1964). *Pedophilia & exhibitionism: A handbook.*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Riordan, S. (1999). Indecent exposure: The impact upon the victim's fear of sexual crim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0,* 309-316.

1 차원고접수 : 2011. 6. 3.
심사통과접수 : 2011. 7. 14.
최종원고접수 : 2011. 7. 2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법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1, Vol. 2 No. 2, 159-170

Incidence and prevention of indecent exposure in terms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and offending behavior

Youn-Sik Kim
Kyonggi University

Jisun Park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As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of indecent exposure has been grossly underestimate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stat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However, considering that offenders may go on to commit more serious type of sexual crime, and that the post-traumatic stress of the crime may have a huge influence on the victim,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ore research.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and victims and analyzed various offending behavior displayed at the crime scene, based on a total of 249 cases of indecent exposure that occurred between 2007 and 2009. As a result, a typical case of indecent exposure turns out to occur on the street in the evening during summertime. Almost all offenders were male, and they typically committed the offense alone. One third of the victims were less than 30 years old, and most of them were strangers to the offender.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effective techniques of responding to the crime and methods of prevention.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indecent exposure, offender characteristics, victim characteristics, offending behavior, crime prevention

www.kci.go.kr